



GE 파워, 글로벌 배열회수보일러(HRSG) 사업장 ‘GE 창원’ 준공

- 복합화력발전의 3 대 장비인 ‘배열회수보일러’의 글로벌 핵심 사업장으로 자리매김

2017 년 5 월 30 일, 한국, 창원 - GE 파워는 오늘 한국의 경상남도 창원에 소재한 ‘GE 창원’ 사업장 준공을 기념하며 HRSG(배열회수보일러)의 연구개발, 설계 및 생산 등 종합 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핵심 사업장으로 재탄생 했다고 밝혔다. GE 파워는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GE 의 복합화력발전 솔루션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난해 8 월 창원 공장을 포함한 두산건설의 HRSG 사업을 인수했다.

오프닝 행사에 참여한 존 라이스 GE 부회장은 “GE 창원은 오랜 기간 축적된 국내 HRSG 엔지니어링 역량과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활용하고, GE 파워의 글로벌 기술 및 네트워크 역량을 결합하여 국내외 고객들의 도전 과제 해결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 김옥진 GE 파워시스템즈코리아 대표도 “창원 지역의 주요 다국적기업의 일원으로서, 경남 및 창원 지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도 기여하는 지역 친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데 노력을 다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HRSG 는 가스터빈에서 발생하는 출력 가스의 열과 에너지를 스팀터빈으로 전달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기술이다. 복합화력발전이 고효율의 전력 생산 기술로 재조명 받으면서 HRSG 의 글로벌 수요가 2 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, GE 파워는 우수한 기술과 프로젝트 수행 경쟁력을 갖춘 GE 창원 사업장의 공급 능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 2016 년말 기준, 44 개국에 총 486 대의 HRSG 를 공급했으며 연간 생산량의 70%이상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.

강성욱 GE 코리아 총괄 사장은 “GE 창원의 출범으로 GE 의 글로벌 핵심 사업인 에너지 발전 분야에서의 한국 내 제조 및 엔지니어링 역량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”면서 “한국의 우수한 HRSG 기술을 전세계 고객들에게 공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

오늘 열린 GE 창원 사업장 준공 행사에는 정구창 창원시 제 1 부시장, 신종우 경남도 미래산업국장, 데이비드 고삭(David Gossack) 주한미대사관 상무공사, 최충경 창원상공회의소 회장, 배은희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장을 포함한 외부 인사를 비롯, 존 라이스 GE 부회장과 강성욱 GE 코리아 총괄사장, 김옥진 GE 파워시스템즈코리아 대표 등 GE 의 글로벌 경영자들이 다수 참석했다.

###

GE 에 대하여

GE 는 세계적인 ‘디지털 산업 기업(Digital Industrial Company)’으로, 소프트웨어 기반의 기계 및 솔루션을 통해 산업을 혁신하고 있습니다. GE 의 산업 기계와 솔루션들은 상호 연결성을 바탕으로 한 긴밀한 대응과 미래 예측을 통해 고객에게 가치를 창출합니다. GE 는 “GE 스토어(GE Store)”라는 글로벌 지식 공유 체계를 통해 GE 가 보유한 기술과 시장, 지식을 전사적으로 활용합니다. GE 는 인재와 서비스, 기술과 규모를 바탕으로 산업이 요구하는 전문성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합니다.www.ge.com

한국에서는 1976 년 공식 출범 후 첨단 기술과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한국 기업 및 정부와 상호 협력하며, 한국 경제와 산업 발전을 위한 장기 동반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1,500 명의 직원들이 발전, 석유와 가스, 전력 송배전, 항공, 헬스케어, 운송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최고의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특히, GE 는 헬스케어 분야에서



국내 연구개발 및 제조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, 성남사업장인 GE 초음파코리아는 GE 헬스케어의 글로벌 초음파 진단기기 총 생산량의 1/2 이상을 공급하고 있습니다.

웹사이트 (www.ge.com/kr, www.geblog.kr, www.gereports.kr) 참조

HRSG 와 복합화력 발전 솔루션

HRSG 은 복합화력발전의 핵심적인 기술이다. 가스터빈에 발생한 배열을 회수하여 물을 증기로 전환하고, 이 증기를 다시 증기터빈에서 구동해 추가 전력을 생산한다. HRSG 기술은 복합화력발전소의 효율을 높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, 발전소의 출력을 최대 33%까지 더 높일 수 있다.

GE 창원

GE 창원은 GE 파워의 글로벌 HRSG(배열회수보일러) 핵심사업장으로 연구개발, 설계, 생산에 이르는 종합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. GE 는 지난 40 년간 두산중공업과의 기술전수 협약(TTA: Technical Transfer Agreement)을 통해 국내 석탄화력과 원자력발전용 터빈발전기를 공급했으며, 복합화력발전용 설비의 경우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도합 국내 총발전설비용량의 약 절반을 제공해왔다. 지난해 8 월 GE 는 두산건설 HRSG 사업을 인수한 이후, GE 파워의 국내 사업부인 GE 파워시스템즈코리아를 신설해 해당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. 2016 년 기준 44 개 국가에 총 486 대의 HRSG 를 공급했으며 연간 생산량의 70%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. 엔지니어를 포함한 약 300 명의 직원들이 GE 창원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.

GE 파워에 대해

GE 파워는 발전 분야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서, 고객이 다양한 연료원을 활용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 GE 파워는 디지털 파워 플랜트, 세계 최대 및 최고 효율의 가스터빈, 발전 관련 모든 설비, 업그레이드 및 서비스 솔루션, 그리고 데이터 기반 소프트웨어를 통해 전력 산업의 변모를 주도하고 있다. 혁신 기술 및 디지털 솔루션을 통해 보다 경제적이고 안정적이며, 지속가능한 전력을 공급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.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(www.gepower.com) 및 트위터(@GE_Power)참조.